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pm
- 주일 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 찬양예배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간 성경 공부 Bible Study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 훈련 Discipleship Class / Mon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

2023년 7월 16일

복음의 증인된 달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

건강한 믿음 성장의 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경배와 찬양: 찬양팀과 함께

예배 기도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 말씀

창세기 12:10-20 / (성경 구약 15쪽)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말씀 선포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결단의 기도 (통일 찬송 455장)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헌 금 구민 / 오정은 집사

봉헌 찬송 213장 "나의 보화 드리니"(4절)

삶과 세상 속으로

찬 양 주께 가오니

축복 기도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 양 과 기도

말씀 사무엘상 7:3-17

미스바에서 에벤에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할 때 '붙잡혀'가 '쉬네코'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던 말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내뱉으면 신상에 위협이 가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대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런 당대함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온갖 험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는 당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예수를 몇 년 믿었는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라면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붙잡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중에서 특히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 14절 말씀을 보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랑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 사랑'이었다.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붙잡혀야 하고 견인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다. 삶의 현장에서 패배하고, 꺾이고, 의욕을 상실하고, 결핍하면 초라하게 살아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이기에 이런 비참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견인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중에서도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야 한다.

초심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내버려두면 옆길로 새고, 방치하면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힌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향해 가슴 벅차게 달려가는 사명 중심의 교회, 사명 중심의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이찬수

오늘의기도

하나님, 뜨거웠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지켜보는 박물관 같은 신앙이 제 신앙이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강력한 십자가에 사랑에 붙잡혀 견인되게 하소서. 무력감에 빠져 있는 나의 신앙에 다시 한 번 가슴 벅찬 꿈을 꾸게 하소서.

어느 날 새벽에 말씀 한 구절을 발견했다. 딱 나와 분당우리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리는 말씀이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주어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 뿐입니다.” 고후 5:12, 공동번역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유난히 큰 글씨로 내게 다가왔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다. 과거의 일에 대한 칭찬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한다고. 이제 과거는 다 잊고 분당우리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그날 새벽에 주신 말씀을 계기로 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 “분당우리교회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현상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했다가 결국에는 생명력을 다 잃고 박제된 박물관 교회로 굳어져 버릴 것이다. 정말 정신 차리고 교회를 창립할 때 가졌던 ‘사명 중심 교회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 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에서 ‘강권하다’는 헬라어로 ‘쉬네코’라는 단어이며, ‘무언가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어떻게 변질을 막을 수 있단다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견인될 때, 우리가 변질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역 / 행사

7월 복음의 증인된 달

2023년 하반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2023 주제 말씀 :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2023 표어 : 성장하는 교회

1.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 갑니다.
2. **Oikos 모임** 오늘 저녁 김훈태/김신실 집사 가정에서 가집니다.
3. **교육 사역 모임** 점심 친교 시간에 가집니다.
4. **설립 감사 예배** 23일 주일에 드립니다.
5. **여름방학** 자녀들이 건강하고 유용하게 방학을 지내도록 기도합니다.
6. **기도** 부모님과 어른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 사역

- 설립감사주일(9)
- Oikos 친교(15)
- 성장/성숙 주간(9-15)
- 사역친교/Oikos 사역(16)
- 소금/빛 된 주간(16-22)
- 설립감사주일/사역친교(23)
- 선교 주간(23-29) & 선교 주일(30)

냉면 축하

- 오정은(14)
- 이광호(14)
- 구은강(28)

한 주간의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 히브리서 13:16

말씀 개요

창세기 12:10-20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사람은 실수하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역시 환경과 타협하며, 자기의 안전과 이익만을 생각했다. 가나안의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피하고, 아내를 아내로 속이고, 부와 명예를 얻지만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파렴치한 아브람을 약속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지키신다.

말씀 요약

하나님의 명령 대로 순종하던 아브람도 현실과 타협하며 잘못된 선택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도피하며,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 거짓말했다. 아내를 버리고, 부와 명예와 바꾸며, 바로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아브람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고, 하면 안 될 거짓말을 하는 파렴치한이 되 버렸다. 축복의 땅을 떠나 범죄한 아브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다.

아브람이 무력해 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하시고 아브람과 사래를 위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일으키셨다. 고통과 저주의 통로가 된 아브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회복시키셨던 것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다.

때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한다. 한 없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과신하며, 피해야 할 죄와 유혹이 있는 곳에 발을 들여 놓기도 한다. 있을 곳에 있지 않아 유혹에 굴복 했던 다윗은 고백했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5-6)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누리자.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자. 죄와 유혹이 표출되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회복과 은혜의 길이다.

1. 2023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열매 맺도록
2.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성훈련하도록
3. 섬기는 목회자의 강건함과 영적 능력을 위해
4.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졸업/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학업과 미래의 꿈을 가지도록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 사역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특히, 새로운 선교/구제협력을 시작하는 튀르키예 박진란 선교사와 사역을 위해

예배 섬김이

7월 16일	박진성 집사
23일	최내권 집사
30일	구은강 집사
8월 6일	김훈태 집사

주일 헌금 위원

7월 16일	오정은 / 구민 집사
23일	구민 / 오정은 집사
30일	최선윤 / 유병하 집사
8월 6일	유병하 / 최선윤 집사

주일 안내

7월	김훈태 집사
8월	구민 집사

성경공부 / 기도 모임

- 주 일 오전 11:00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약속
- 월요일 오전 10:00 교회 성장
- 화요일 저녁 8:00 인물 성경공부/Zoom

섬기는 사역자	지도 목사(Lead Pastor) 김성배 목사
	찬양 인도자(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교육전도사(Youth Pastor) Jacob Kim 전도사
